**창원이니셔티브**

**지난 10년간의 기록**

**머리말**

토지는 지구상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필수자산이자 번영과 지속가능한발전 및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기반이기에 토지 보호와 복원은 인류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창원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의 협력으로 2011년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UNCCD COP10)에서 출범하여 ‘토지황폐화 중립 세계(Land Degradation Neutrality World)’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과학연구 및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황폐화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y) 개념을 구상하고 검증함으로써 토지황폐화중립 및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5.3 채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130개국 이상이 자발적으로 토지황폐화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니셔티브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토지황폐화중립을 실현하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에 전념하는 여정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는 파트너십 구축, 모든 수준에서의 협력 강화, 이해관계자들간의 연결성 향상, 역량 개발 및 지식 공유를 촉진할 것입니다. 창원이니셔티브는 이 모든 활동을 통합하여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 황사, 양성평등, 평화 및 안보 등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창원이니셔티브가 토지황폐화중립 달성에 있어 가속장치가 되길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를 이 여정에 초대합니다.

**배경 및 소개**

토지황폐화는 매년 미화 4천억 달러의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토지황폐화를 중단하면 해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미화 1조 4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지역 사회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황폐화중립 달성에 있어,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토지를 위한 세계인들의 목소리라면 창원이니셔티브는 그 소리를 높여줄 확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창원이니셔티브는 2011년 시작부터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목표 달성 및 토지황폐화중립 발전의 ‘아이디어 연구소’이자 변화를 위한 ‘동력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안으로 고안된 창원이니셔티브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 재정을 유연하게 지원함으로써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막화 방지, 황폐화된 토지 복원, 토지황폐화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토지황폐화**는 토지의 자원생산능력과 생태적 보전성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는 고유 생태계, 농작물 재배 능력 또는 유역 보호 등의 손실을 의미하고 대부분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토지황폐화중립**은 토지황폐화를 감소시키거나 역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궁극적으로 토지황폐화중립은 복원 및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등을 활용하여 우리의 생계에 필수적인 토지 사용과 자연 상태의 토지 보존 간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주요 성과**

창원이니셔티브는 유엔토지황폐화협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토지황폐화중립 개념 개발 및 시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건조지녹화파트너십(Greening Drylands Partnership)과 생명의 토지상(Land for Life Award)과 같은 진행이 순조롭고 전 세계에 유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사업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활동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 개발 및 주요 활동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토지황폐화중립 과학 기반 구축** **:** 창원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토지 보존에 있어 중요한 프로그램이자 귀중한 지표로서 토지황폐화중립을 확립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토지황폐기술 실무자, 연구 논문 및 기타 다양한 활동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효과적으로 토지황폐화중립 달성을 위한 적합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 **지속가능한발전목표 15.3 채택 :** 토지황폐화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 15.3 채택은 최근 몇 년간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가장 중요한 단일 성과로 간주되었으며, 전 세계가 토지황폐화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창원이니셔티브는 본 목표를 실현하고, 과학, 홍보,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토지황폐화중립 국가 목표 정립 :** 창원이니셔티브는 각국의 자체 목표 개발에 유용한 과학적 지침을 마련하고 기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4개국에서 목표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것이 현재 131개국이 토지황폐화중립 목표 정립에 전념하도록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 중 100개국 이상이 이미 자체 목표를 정립했습니다.

∙ **자원 동원 :** 창원이니셔티브는 자원이 제한적인 것을 고려하여 일찍부터 다른 공여자 및 자원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건조지녹화파트너십과 같은 그룹을 지원하여 토지 복원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 개척 및 전파를 목표로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 **과학 강화** **:** 창원이니셔티브는 과학 연구를 지원하여 정부가 과학을 기반으로 유용한 정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이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과학-정책 지침의 권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전략목표(2018~2030)**

1. 파괴된 생태계 개선, 사막화∙토지황폐화∙가뭄 방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촉진, 토지황폐화중립 기여
2. 피해 인구의 생활 여건 개선
3. 가뭄 영향 완화 및 관리, 생태계 복원력 및 피해 인구의 대비역량 강화, 대응 및 복구 역량 개선

**추진 방향**

창원이니셔티브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토지황폐화 해결을 위한 과학 및 정치적 의지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기존 지원을 기반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전략목표를 확장해 나가고, 지속가능한발전목표 15.3 달성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아직 창원이니셔티브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활동이 남아있으며, 유엔사막화방지협약 활동과 지속가능한발전목표 15.3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이니셔티브는 국가 수준의 실질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니셔티브의 전반적인 목표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전략 프레임워크(2018~2030)의 비전인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를 방지, 최소화, 역전시키며 모든 수준의 피해 입은 지역 내 가뭄의 영향을 완화하고, 토지황폐화중립 세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와도 부합합니다.

**중점추진영역**

1. **토지황폐화중립 목표 :** 자발적 목표 설정 및 기대수준 확립(현재 130여 개국 이상에서 진행중)
2. **영향력 :** 토지황폐화중립의 이점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서 빈곤 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3. **파트너십 및 자원 동원 :** 파트너와의 소통 효율화, 파편화 해소, 기후금융(Climate Finance)과 같은 새로운 기회의 체계적 활용
4. **혁신적 행동 :** 혁신적인 토지황폐화중립 사업 설계 및 이행을 통한 다층적 결과 제공
5. **모니터링 및 보고 :** 토지황폐화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상황 및 목표와 토지∙기후∙생물다양성과의 연관성 점검

**기대효과**

창원이니셔티브의 1단계에서 기반을 구축했다면 2단계는 현재 상황과 목표하는 바 사이의 실질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창원이니셔티브와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토지황폐화중립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 및 사람들 사이에서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활동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노력이 발생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과 자원 동원에 초점을 맞춰 진전해 나갈 것입니다.

창원이니셔티브는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네 가지 전략적 원칙을 채택하여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 **과학적 신뢰성:** 과학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 및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 기반 접근법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과 집단 행동을 촉진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 **국가 및 국제적 시너지 효과 :** 창원이니셔티브 고유의 관점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국가, 파트너가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국가적 행동과 국제적 행동을 연계하여 글로벌 목표의 효율적 이행 및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방지하며 지식 공유 및 모범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 **파트너십 강화 :**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또는 기타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확장 가능하며, 국가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최고의 공공 또는 민간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토지관리를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탄력성 및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역적 영향 :** 지역사회 또는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의 지역적 역량 구축을 지원하여 토지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기후변화 및 기타 위협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토지 복원은 해당 토지 거주민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 거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삶과 생계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와의 성과 공유**

이러한 전략적 원칙은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행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토지 복원 및 거주민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 속에서 노력한다면 사람들이 참여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용한 것을 발견하면 전 세계가 그 유용성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유하는 자료가 믿을 수 있고 실질적 개선 사항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결과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성 있는 모범사례, 교훈, 경험을 공유한다면 사업을 더욱 쉽고 확실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토지상(Land for Life Award)**

창원이니셔티브는 생명의 토지상을 후원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모색해 왔습니다. 생명의 토지상은 창원이니셔티브와 동시에 시작되어 현재 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서 7번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에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것을 인정하는 상으로서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 방지 및 토지황폐화중립에 기여한 성공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러한 성과에 대해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 활동을 진전시키는 파트너십을 촉진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창원이니셔티브는 그간의 노력으로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변화를 위한 ‘동력원’으로 진화하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목표에 대한 주요 자료, 자원, 지원을 제공하는 창원이니셔티브는 이제 그 능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발전목표 15.3을 충족하기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팀을 구축할 것이며,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주요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기반으로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사막화, 기후변화 및 기타 토지황폐화에 취약한 지역사회가 지식, 지원 및 도구를 보유하여 지속가능한 현재와 미래에서 살아가고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